

코오롱티슈진 TG-C, 무릎골관절염 치료 분야 새로운 표준 제시한다

- ▷ 세계 최대 규모인 2026 미국 정형외과학회 'AAOS' 참가
- ▷ 학회 참석자 대상 TG-C 기존 임상 데이터 및 연구 결과 공유
- ▷ 글로벌 제약사 등 잠재적 파트너사 전략적 네트워크 확장

코오롱티슈진 전승호, 노문종 대표가 지난 3월 2일(현지시간)부터 6일까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형외과 학술대회인 2026 미국 정형외과학회(이하 AAOS)에 참가했다. AAOS는 매년 약 1만 6천여명의 전문의와 글로벌 바이오 업계 관계자 등이 집결해 최신 연구 결과와 혁신적인 치료 기술을 공유하는 정형외과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다.

코오롱티슈진은 이번 학회에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TG-C의 기존 임상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밝혔다. 현재의 치료 방식으로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데 집중하거나 인공관절 치환술(TKA)로만 근본적 치료가 가능했던 환자들에게 TG-C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.

이번 학회 기간 동안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주요 병원 및 연구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들과 여러 차례의 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임상진행 상황과 향후 실제 처방을 담당할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TG-C의 약효를 알리는데 주력했다.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TG-C가 새로운 선택지이자 신개념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했다.

또한,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소통과 함께 TG-C의 상업화와 관련한 잠재적 파트너사와의 협의도 진행했다. 글로벌 제약사의 의학부서(Medical Affairs) 담당자 및 자문단을 대상으로 TG-C의 의학적 가치와 향후 상업화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며, 미 FDA 임상 3상 막바지에 이른 TG-C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. 지난 바이오컨퍼런스와 JPM에서 미팅 자리를 가졌던 글로벌 정형외과 의료기기 기업들과도 후속 미팅을 가지는 등 관련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.

학회에 참석한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는 “TG-C는 골관절염 분야에서 기존의 치료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”이라며, “수술이 부담스럽거나 치료 공백이 있는 경우 전문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치료 방법이라는 의료 현장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 코오롱티슈진 전승호 대표 역시 “미 FDA 임상 3상 막바지에 이른 TG-C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품목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혁신적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것”이라며 “이번 AAOS 참가를 북미 시장 내 인지도 제고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”고 말했다.

※사진설명 : 코오롱티슈진 전승호, 노문종 대표가 2026 미국 정형외과학회(AAOS)에 참가해 현장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.

